

2023년도 제4차

전주비전대학교 대학평의회

□ 일 시 : 2023. 5. 24.(수), 16시 30분

□ 장 소 : 비전관 2층 대회의실

□ 부의안건 (심의 2건)

1. 학칙 개정(안) 심의
2. 글로벌대학30 사업 신청 심의

□ 참석자 명단

의 장 김 승 희

부의장 박 영 미

평의원 박 용 균 (인)

평의원 황 인 규 (인)

평의원 김 영 임

평의원 장 진 수

평의원 신 종 수

평의원 윤 진 훈

평의원 장 은 수

평의원 양 탁 연

평의원 이 정 인

평의원 박 훈 민

전주비전대학교 대학평의회

<2023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 소집 통보일자	2023. 5. 17.
의 원 정 수	재적의원 12명

VISION College of Jeonju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2023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3년 5월 24일(목) 16:30

2. 장소: 비전관 2층 대회의실

3. 참석인원: 재적의원 12명 중 11명 참석

- 참석의원(11명): 김승희 의장, 박영미 부의장, 황인규 의원, 김영임 의원, 장진수 의원, 신종수 의원, 윤진훈 의원, 양택연 의원, 장은수 의원, 이정인 의원, 박훈민 의원
- 불참의원(1명): 박용균 의원

4.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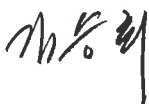
- 제1호: 학칙 개정(안) 심의
- 제2호: 글로벌대학30 사업 신청 동의(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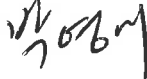
5. 회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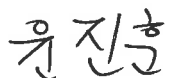
- 개회기도: 양택연 목사 개회 기도
- 성원보고 및 개회: 박성용 간사가 재적의원 12명 중 11명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
- 전차 회의록 확인: 전차 회의록 내용 확인
- 안건 상정

제 1 호 안건: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 ▶ 김승희 의장: 첫 번째 안건은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으로 우병훈 기획처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우병훈 기획처장: 교육부의 2024학년도 간호학부 입학정원 11명 증원 승인을 포함하여 학과 신설, 폐과, 학과명 변경, 입학정원 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계과 야간 및 보건의료경영과 신설, 정보통신과, 드론융합학과 및 자율전공학과 폐과, 보건행정학과를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로 명칭 변경, 건축과, 응급구조학과, 간호학부 증원, 자동차과,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를 감원하는 내용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경과사항: 학사구조 개편(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
- ▶ 김승희 의장: 설명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 박영미 부의장: 기계과와 건축과는 모두 산업체 위탁과정을 폐과하고 야간을 신설하는 것인지, 학과와의 협의는 잘 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우병훈 기획처장: 학과장 회의, 처장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조율과정을 거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승희 의장 

박영미 부의장 

윤진훈 의원 

아울러 기존 산업체 위탁과정과 정원내 야간과정의 장학혜택 상이점을 규정 개정을 통해 해소하고자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 시작 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신중수 의원: 보건행정학과와 감원과 보건의료경영과의 신설 관련, 신입생 유치 등 학과의 경쟁력이 충분히 분석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드론융합학과와 자율전공학과는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폐과되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재적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잘 관리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승희 의장: 해당학과 교원의 입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학과에 대한 수요, 졸업 후 진로의 방향과 인력 수요 현황 등에 대해 학과 자체적 분석, 입학관리처, 학사지원처, 기획처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건행정학과와 감원과 보건의료경영과의 신설을 결정하였으며,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중수 의원: 학과의 의지가 매우 높은 만큼 경쟁력 있는 우수학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미 부의장: 간호학부는 증원 전 정원 외를 포함하여 최대 160명까지 충원이 가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학과 운영을 고려하여 140명까지만 충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178명까지 충원이 가능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병훈 기획처장: 기본적으로 대학 입장은 최대치의 충원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강의실, 기자재, 교원 충원 등에 대한 여건을 고려하여 학과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영미 부의장: 신입생 충원은 등록금 수입의 제고로 직결되는 만큼 재정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충원을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학과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승희 의장: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황인규 의원: 원안대로 심의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영임 의원: 재청합니다.

▶(경과사항): 황인규 의원의 동의와 김영임 의원의 재청으로 김승희 의장은 최종적으로 이의나 개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가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다.

제 2 호 안건: 글로벌대학30 사업 신청 동의(안) 심의에 관한 건

▶김승희 의장: 두 번째 안건은 글로벌대학30 사업 신청 심의에 관한 건으로 우병훈 총장직무대행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병훈 총장직무대행: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RISE사업 체제의 전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중 글로벌대학30과 RIS사업이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RIS사업은 올해에 선정이 완료되었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대학30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동일법인 내 학교 간 통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인식조사, 연구위원회 발족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대학30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주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미선정 되거나 이사회 의결이 무산될 시 두 대학의 통합 의결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희 의장

개승희

박영미 부의장

박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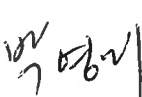
윤진훈 의원

윤진훈

- ▶박영미 부의장: 예비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 입시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학과 관계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선정 시, 통합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병훈 총장직무대행: 말씀해주신 염려사항은 예상되고 있기에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완료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중수 의원: 미선정이 되든, 통합이 되든 그 후폭풍이 매우 심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향후 재정지원사업의 중요 요소인 재정진단평가와 관련하여 재정부실대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과감한 혁신은 지역연계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병훈 총장직무대행: 2023회계연도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부실대학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의도는 통합을 통한 대학 규모의 적정화가 최우선인 것으로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장은수 의원: 총동창회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대학30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서 제출을 위한 통합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비지정 이후 세부계획 수립 시에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추진되어야 하며, 이때 본교에 불합리적 요소가 많을 시에는 추진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 ▶윤진훈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되었던 구성원의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구성원 동의를 기반으로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서 작성시에는 우리 대학의 특징적인 2~3년제 전문기술인력 양성대학이라는 학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 ▶장진수 의원: 올해 글로벌대학30사업 신청 후, 모든 대학의 신청서가 공개될 것입니다. 때문에 차년도에는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이며, 선정 기준점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올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하며, 우리 대학의 입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양탁연 의원: 현재 공표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방향성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준비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글로벌대학30사업 신청서 제출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병훈 총장직무대행: 대학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그 결정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대학30사업 신청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양탁연 의원: 동의합니다.
- ▶박훈민 의원: 재청합니다.
- ▶경과사항: 양탁연 의원의 동의와 박훈민 의원의 재청에 따라 김승희 의장은 최종적으로 이의나 개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글로벌대학30사업 신청 동의를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언하다.
- ▶김승희 의장: 금일의 안전인 학칙 개정(안)과 글로벌대학30 사업 신청 동의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4일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귀하

김승희 의장 

박영미 부의장 

윤진훈 의원 